

**최** 근에 모방중국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놀거리를 응용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렸을때 장난으로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던 이불 빨리 말기를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 온돌방시절 이불을 펴놓고 이불을 돌돌 말고 장난을 쳤던 추억을 생각하면 금새 이해가 갈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놀이거리였던 화투가 아닌 새로운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 기획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거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과 무엇이든 놀이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주5일제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 잘 노는 것이 웰빙이다.

웰빙(well-being)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많은 웰빙을 외치고 있다. 웰빙은 복지고 개인의 안녕이고 사회의 안녕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은 인간의 생활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철학적 영역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모든 인간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참여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람은 없다. 다만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여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채 준 안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장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여가시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여가시간도 많아지는 세대가 되었다. 우리가 배웠던 여가는 그저 쉬는 것이었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많이 생겼다. 어떻게 쉬어야 할까?.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는 관객인 것이다. 책을 즐기면 독서하는 사람이고, 콘서트를 관람하면 관객이고, 여행을 하면 여행객이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술을 즐기는 손님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여가를 자기스타일대로 즐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극장의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동통로 등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야 극장에 자

“ 지금 우리에게서 여가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복지 임상현장에서도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뿐 아니라 여가재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가가 될 것이다. 환경적 제약이 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자신만의 여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을 나는 본자즐모(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활동)라고 통칭한다.

나는 우리가 같은 기성복을 사지만 모두가 다르게 연출하여 입는 것처럼 같은 여가 활동이더라도 각 사람의 개성과 연출에 따라 다른 여가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의 여가생활 스타일은 무엇인가?


여가생활스타일이란 “전체의 삶 속에서 여가와 관련된 태도, 인식, 활동의 표현이 일상적인 행동에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의 핵심은 여가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행동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여가생활스타일이 개인의 일상적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여가하면 여행가기, 영화보기, 외식하기, 쇼핑하기등 무언가를 행위와 돈으로

서 즐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여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가는 “본인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여가에 관한 고정화된 인식이 변화되어야만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가를 잘 알고 잘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여가자원을 구축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서 여가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복지 임상현장에서도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뿐 아니라 여가재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 사회복지인들도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의 파도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에 눈을 떠야 할 것이다. 

## 도서소개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글 : 최성개  
출판사 : 나눔출판

필자가 지난 20년 동안 강의해 온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이 사회과학방법론의 틀 속에서 있음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동시에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의 실천현장에서도 사회과학적 관점을 충분히 살려 사회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책을 집필하였다. 대학 교과서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조사가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필하다보니 분량의 제한으로 사회과학의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의거한 양적 사회조사방법론에 거의 한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질적 사회조사를 의식하여 간간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비교 서술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17장 질적 조사방법의 특성과 조사절차를 간략히 다루고 있으므로 질적 사회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직화기술



글 : 최욱체  
출판사 : 학연사

필자는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두가지 큰 상담과 조직화라고 말하며, 특별히 조직화는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서 핵심 기술로, 개인이나 가족 및 집단 중심 개입에서는 공조기술로 활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기술이 미흡한것이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고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남달리 익혀야 할 조직화 기술을 소개함은 물론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내용 구성은 철학, 개념과 이론, 전략, 기술, 전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화 기술의 익힘과 조직화 활동이 이런 순서로 전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